

종교와 문학

정진홍*

제1부 강연

정진강 : 중어중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진강 교수입니다. 제4회 송실인문강좌 개최를 위한 소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일을 맡고 있는 하정식입니다. 사람 삶이 라고 하는 것이 늘 너무 많아도 탈이고 적어도 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금년 기후를 보아도 특히 지난 여름은 너무 많은 더위와 물과 바람을 갖다 주어 가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가을을 기다려서 연구소에서는 인문강좌를 조금 서둘러서 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문강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해당 학문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모시고, 그 분들의 그러한 성과를 같이 나누어 듣고 우리를 계발해 가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현대학문이 지나치게 울타리라고 할까, 경계라 할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문학이 사람의 이야기여야 될 텐데, 나중에 하다보면 서로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 서울대 명예교수 · 한림대 특임교수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바깥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아니면 최근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조의 학문들과도 접하면서 소통할 기회를 갖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인문강좌를 마련하였고, 오늘로 4회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는 종교학자 정진홍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탐구할 문제는 ‘종교와 문학’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외국의 종교학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종교를 도구로 삼아 한국사회를 분석하셨고, 한국 특유의 편협한 종교현상을 비판하고, 종교의 긍정적인 가치를 알리는 일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선생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나눠드린 팜플렛의 세 번째 페이지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1937년에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셨고, 1965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 후 미국에 가서서 United Theological Seminary(STM)와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D). Min)에서 수학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덕성여자대학교와 명지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3년에 정년퇴임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종교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정년하신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신학의 길을 택하셨다가 이후에 종교학으로 옮기셨는데, 종교가 초월이나 신비의 범주에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지극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강조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애써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종교현상학을 전공하셨는데, 신화학, 종교 상징론, 신화와 역사, 종교와 예술 등을 강의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서를 내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종교학서설》(1985), 《한국종교문화의 전개》(1986), 《신을 찾아, 인간을 찾아》(1994), 《한국종교문화의 이해》(1995), 《종교문화의 인식과 해석》(1997),

《하늘과 순수와 상상》(1997), 《종교문화의 논리》(2000), 《만남, 죽음과의 만남》(2003), 최근에는 《열림과 닫힘—인문학적 상상을 통한 종교문화 읽기》(2006)등이 있습니다. 또 시집으로 《마당에는 은빛 꽃이 핀다》를 1997년에 내신 바 있습니다. 번역서도 많이 내셨는데, 그 중 하나만 소개하자면 M. Eliade의 《우주와 역사》(1976)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람과 일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모시는 짧은 시간에 선생님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잘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짧게 소개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선생님의 말씀이 저희가 의도하고 기획한 인문강좌에 아주 일치하는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강 : 저희 인문강좌가 4회를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용준 교수님을 모시고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구요. 그래서 과학에서 출발한 인문강좌를 두 번째는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고, ‘지식의 대통합’이라는 “통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자연과학 쪽으로, 생명과학 쪽으로 넘어갔다가요. 지난번에는 이강숙 한국종합예술학교 전 총장님을 모시고,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쩌면 기존에 했던 세 분야에 대한 새로운 통합을 ‘종교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아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제 전공은 사실 중국어학입니다. 다만 언어와 종교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사회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종교에 대해서도, 또 문학에 대해서도 문외한입니다만, 아마도 선생님의 존함과 제 이름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방면에 대해서 지식이 일

천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선생님을 모시는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소개하신 책인데요, 『하늘과 순수와 상상』 ‘정진홍 교수님 종교문화 읽기’에 관련된 서두에 실린 글인데요, 오늘 선생님의 포커스는 종교학 쪽에 맞춰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측한 소개글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불행하게도 필자는 그런 종교학적 전승을 동경하면서도 그 흐름에 실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 학문적인 천착이 어릴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성취마저 소통 가능하게 하는 재주가 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문이 문화에 대한 인문적인 관심의 한구석에 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지극히 불완전하면서도 그것을 발언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감추고 싶지는 않다. 이 같은 태도는 분명히 성숙한 학문을 위해 염려스러운 것이지만 필자의 실존적인 자리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정직에의 충동이기도 하다.

큰 박수로 정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홍 : 제가 넘어져 팔을 다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오래전에 이명수 선생님의 초청을 받아 ‘종교와 문학’이라는 주제로 여기 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니까 당혹스럽습니다. 동어반복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늘 다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뻔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한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 계신 분들이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하여간 또다시 제가 고민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보태서, 오늘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신문마다 특집도

하고, 연재도 합니다. 요전에 <출판저널>에서 인문학 출판물들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 현상에 대해 언급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제가 《열림과 닫힘》이라는 책을 쓰면서 부제를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한 종교문화 읽기’라고 했는데 도무지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인문학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인문학의 권력’이 쇠잔해 지는 것 같다. 인문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만이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만이 고민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 법이다. 그런데 그러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인문학의 태도가 인문학을 스스로 소멸되게 한 것 아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문학은 늘 사람들에게 ‘자기의 앞’을 억지로 가르치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온 것 아닌가? 실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지닌 자의식이다. 그런데 그것을 소크라테스라는 분의 권위를 빌려 인문학자만이 전유하고 있는 진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인문학의 ‘권위의 계보학’이 몰락하는 것 아닐까? 정직하게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 고민하고 그랬더라면, 인문학이 오늘처럼 그렇게 몰락을 했든지, 책이 팔리지 않는든지 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다’는 말은 실재를 직관한 기막힌 인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주장 옆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첨가한다고 합니다. ‘붕어 안에도 붕어는 없다’ 기존의 인식을 인문학적 권위를 빌리지 않더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거지요. 또 ‘짧은 것과 긴 것은 대보아야 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짧은 것과 긴 것은 대보아도 모른다’고 말

한다고 합니다. 다윈사회 안에서의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개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실은 ‘인문학적 상상력’ 속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래야 된다는 것만 가르쳐 왔을 뿐,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각을 억제하니 그것이 인문학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인문학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을 유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종교는 이런 것이다’라든지 ‘문학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마치 도그마 같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얘기할 적에는 ‘아무개가 문학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무개는 문학을 이렇게 얘기했다’하고 수없는 ‘이론들’을 나열하고 나서 ‘고로 문학은 이런 거다’하고 자신의 ‘인식’을 매듭짓습니다. 아주 자상하고 완벽한 종합된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자신은 사라지고 다만 ‘권위의 계보학’을 좇아 그 끝에 자기를 자리 잡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요?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면, 신학자들도 그렇고 불교학자들도 그렇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고, 원효는 어떤 주장을 했고……. 하면서 줄줄 물 흐르듯 긴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보면 ‘그래서 너는?’하고 묻고 싶은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잘 익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태도가 결국 자신을 속이는데 이르는 것은 아닌지요. 왜 우리는 배울 수록 정직하지 못한가? 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물으면 안 되는가? 왜 내가 물으면 건방지고 아직도 생각이 어리다고 판단을 받아야 하나? 왜 우리는 물을 자유도 생각할 자유도 없는가? ‘학문’ 또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왜 우리는 ‘구속’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낳은 실상이지 않을 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교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

고, 문학도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더 솔직하게 내가 정말 문제되는 것을 물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약이나 구속이 없는 진공상태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적어도 이런저런 발언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이 뭐냐 하면 질문을 차단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이 계셨는데, 정말 고민이 되어서 무얼 여쭙보면, “그런 생각하면 이단이야”하는 한마디로 더 이상 물음을 물을 수 없게 하시곤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꼼짝을 못하겠어요.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참 대학이 다니기 싫은 곳이 되더군요. 자유롭게 온갖 것을 마음껏 호흡하면서 자유롭게 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대학인데, 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문제를 묻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권위가 마련한 준비된 물음’을 내 문제로 수용해야 합니다. 내 문제에 대한 물음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 문제야!”하는 가르침을 반복해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제 문제입니다.”하는데 이릅니다. 그 다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알았지? 그게 네 문제야.” “알았습니다. 그럼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게 네 대답이야.” 대답도 권위에 의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것입니다.

그 물음과 해답을 간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경험과 통찰을 통해 이루어진 그 도식과 내용을 억지로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긴요한 ‘토양’으로 삼기 위해서는 스스로 묻고 해답하는 절실한 삶이 아울러 펼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물음이야!” “네, 그렇군요.” “그것에 맞는 해답은 이것이야!” “네, 그렇군요.” 이것은 아닙니다. 과연 학문하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이게 이른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이러한 고민을 무척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정직한 물음을 종교에 대하여 물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문제를 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문제에 대한 메아리를 그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분들에게 의해서 되받을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찾아 해매면서 나로부터 울리는 소리와 만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날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한 일간신문에 영화평을 쓰는 이 아무개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영화평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학과를 나온 기자인데 그 친구를 저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종교현상학을 수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종교라는 용어를 얼마나 자주 썼겠습니까. 당연한 개념어로 아무 지장 없이 자유롭게 그 용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반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손을 들더니 저한테 “선생님 종교가 도대체 뭘니까?”그러는 거예요. 순간 아주 기운이 빠지더군요. 조금 화도 나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정직한 물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무수한 학자의 종교연구가 자기에게는 전혀 무의미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견딜 수 없어 절규한 것이 그 물음이지요. 정말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라는 말은 무수하게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었던 거죠.

요전에 재미있는 논문을 읽었습니다. 역사나 사상이나 문화현상들을 만화로 그리시는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이 종교를 주제로 해서 만화를 그렸어요. 그 만화에 보면 종교의 기원이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쏟아지고 하는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하느님!”하는 데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전형적인 유물론적인 종교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분이 《종교문학비평》이란 저널에다 그 만화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분의 비판준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천둥 번개 치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그때 사람들은, 자연환경에 대

한 공포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살던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을까? 서로 증오하지 않았을까? 서로 배신한 아픔은 없었을까? 왜 인간의 그러한 보다 심각한 고뇌는 전혀 간과한 채 자연현상에 대한 공포만을 들어 그로부터 종교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판적 안목이 지극히 소박하고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때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을 다 겪었을 텐데, 그 온갖 아픔과 갈등이 다 있었을 텐데, 왜 그러한 현상을 간과한 자연현상의 묘사에서만 종교기원을 찾아 그것을 이론화하고, 또 그러한 이론(theory)을 아무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그 짧은 친구는 ‘학문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비상식의 일상화’를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라도 그것을 좀 물어 봐야겠다고 나선 거죠.

그런데 ‘기존의 학문의 권위’는 그러한 이견이나 반론에 대해 너그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직한 만남’ 곧 모든 이론들에 대한 정직한 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좀 ‘정직하게’ 만나야하겠고, 종교도 좀 정직하게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부닥쳤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데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데(M. Eliade)라는 종교학자는 인간이 언제부터 종교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추적하다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직립원인(直立猿人)의 삶에서부터 종교를 서술할 수 있는 어떤 문화현상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분이 그렇게 주장한 논거가 참 재밌습니다.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우뚝 섰을 적에 그때, 다시 말하면 네 발로 기어 다니던 짐승의 상태에서부터 직립원인이 된 그 상태로

변화되었을 적에, 그 동물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변화가 어떤 결과 하는 것을 추적해 본거죠. 엘리아데는 우뚝 섰을 적에 가장 중요하게 그때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 것은 ‘방향감각’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딱 서서 보니까 앞과 뒤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좌가 있고 우가 있고, 더 나아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상하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의식을 갖기 시작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감각이 종교문화의 처음일 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럼 왜 그것이 종교문화의 처음이라고 얘기가 되느냐? 그는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떠돌아다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나 되돌아와야 할 자리를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떠난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지요. 앞으로 갔다가도 되돌아와야 하고 뒤로 갔다가도 그래야 하며 좌우 어느 쪽으로 갔든 반드시 되돌아와야 하는 ‘점’이 있는 것이지요. 위와 아래로 갔다가도 돌아오는 곳은 바로 떠난 자리입니다. 엘리아데는 이를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으로의 회귀’를 위해 방향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방향감각의 상실’은 ‘중심의 소멸’이고, 그것은 다시 ‘돌아갈 곳 없음’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엘리아데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향감각을 깨어있게 하여 제대로 떠난 자리에 되돌아와 중심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중심의 상징(center symbolism)’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바로 ‘중심으로 되돌아오기’ 또는 ‘중심 찾기’, 더 나아가 ‘중심 만들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종교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화가 ‘센터 심볼리즘’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도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리 찾기’의 커다랗고 아름답고 깊고 섬세한 언어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고 믿어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직한 대면이죠. 기존의 설

명이 부정확하거나 부정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물음으로, 자신의 해답을 찾아 가려는 어떤 용기,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센터 심볼리즘'을 살아가는 인간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종교적'이면서 '문학적'인 까닭이 바로 그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를 어떻게 묻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제2부 질의

정진강 : 오늘 선생님께서 사실 여러 영역의 말씀들을 정제되고, 새로운 언어로 저희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그간 제 스스로 궁금하고 나름대로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종교학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미 보편적인 문화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태생이 종교학자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 더 인용하고, 선생님과 함께 대화의 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해하게도 특정종교에 관한 관심은 많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투명하지만 종교문화 일반에 대한 관심은 모호하고 은밀하다. 많은 경우 종교문화에 대한 지적인 탐구는 학문의 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실존적인 물음의 긴박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이해되는 것이 종교라고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에 대한 지적인 탐구는 비록 그것이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은폐될 수는 없다. 인식과 실존의 문제는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들은 말씀들, 우리 함께 관심 있는 주제들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단초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참, 약정질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서양사학을 전공하시는 김인중 교수님 먼저 하시죠!

김인중 : 숭실대 사학과 김인중입니다. 사실 약정을 한 것은 아니구요. 서양사학에서 '기억'의 문제에, 기억의 상실이라 해야 하나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 사회사적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문화적 변화의 원인이 아닐까요?

또 하나는 어쩌다가 귀동냥으로 논어의 한 대목을 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仁者는 말을 잘 하는 것이 인자가 아니고, 어눌해야 인자다.' 이런 대목이 있던데, 이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구요. 선생님 말씀이 종교와 문학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단히 학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데, 분석방식은 대단히 학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언어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진홍 : 제가 메모를 잘 할 수가 없어서, 손에 힘이 없어서, 메모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이라는 것, 언젠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 곧 '치매에 걸린 노인', 다시 말하면 '기억을 상실'한 인간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만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기억되고, 어떤 것은 스쳐갑니다. 그리고 기억된 것만이 삶을 구성합니다. ‘기억된 것’을 축적한 것이 경험이고 곧 삶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기억은 곧 삶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의 상실은 삶의 상실과 다르지 않죠. ‘기억할 것 없음’이 삶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 삶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참혹한 삶’에 대한 아픈 모사이겠죠. 삶의 고갈, 그것이 기억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당연히 인간이 사회적 실존인 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겠죠. 저는 서양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도 개인의 인격처럼 ‘기억’의 구조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문화 안에서의 기억의 주체의 문제, 문화가 제기하는 기억의 상실의 문제 등이 그러하죠. 더 나아가 문화가 지닌 기억의 전승의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갈릴레오 재판’에 대한 교황의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과거의 과오를 사죄했다고 표기했는데, 그 원문을 읽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다. 그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갈릴레오에 대한 정죄라는 사건이 맥락적인 것을 벗어나 문화의 진전과정에서 잘못 기억되고 있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라고 해야 옳을 그러한 내용으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러나 무척 모호한 논리를 펴고 있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황 무오설은 여전히 현존하니까요. 그 잘못된 기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야 옳을 듯싶었습니다. 그 기억이 잘못 됐다든지, 잘못된 기억을 용서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기억의 문제가 역사라는 개념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이나 인식의 주체가 역사라는 개념 속에서 유실되는 것에 대한 저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왜 어떤 것은 기억을 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할까? 왜 잊고 싶어 할까, 아니면 왜 기억하고 싶어 할까? 하는 물음이 그치질 않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

는 몇 편의 글들을 모아 《경험과 기억》이라고 제한 책을 펴낸 일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언어의 문제인데, 글썬요. ‘어눌하다’는 말, ‘말을 더듬는다’는 뜻인데… 개념의 명료성을 유지하고 논리의 일관성을 지닌 글이나 언어가 아닌 것이 결국 ‘더듬는 말’이 되는 셈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열림과 닫힘,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읽은 종교문화》라는 책을 내면서 ‘내 이 어눌한 발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뜻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쓴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더구나 그것을 언어로 옮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학문의 언어는 명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도 좋을 정도라면 구태여 학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무언지 선명하지 않고, 일상적인 언어에 담기에는 지극히 복잡한 모습이 보이고, 자칫 간과하거나 곡해하거나 해서 인식자체가 일그러질 수 있을 위험을 감지하면서 사물을 할 수 있는 한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의 언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바꾸어 말한다면 저는 ‘학문하는 사람의 언어’는 늘 ‘어눌한 언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합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어눌한 논리, 더듬거리는 발언, 애써 적절한 언어나 개념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움, 그러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새 언어를 발언하고는 홀로 만족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언어들, 그것이 곧 학문의 발언이고 언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학문의 언어는 결코 ‘쉽게 발언되고 쉽게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인(仁)’이 곧 학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學)’의 속성이 ‘인자(仁者)’의 속성이기도 하다면 저는 그 경전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학문은 쉽게 발언되어야 하고 쉽게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어눌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학자의 말은 모름지기 어려워서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 언어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듬거려 아무도 모르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학문적인 진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합니다. 단순 명료한 문장으로 거침없이 풀려가는 문제라면, 삶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학문할 까닭도 없죠. 단번에 ‘터득’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얽히고 문제가 꼬이고 고민이 쌓이니까, 자꾸 정교하고(delicate) 치밀하게 꼬인(sophisticate)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배우는 사람’의 언어는 마땅히 어눌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언어에 담는데 더할 수 없는 고뇌와 겸손과 신념을 쏟아 붓다 보니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반응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언어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제 자의적인 이해입니다.

제가 문학과 종교 사이에서 불투명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주신 대로 이러한 ‘어눌한 정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 저는 송실대학에서 ‘성서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송실대학 안에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학과가 인문대학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박사학위가 한국어로는 문학박사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문학박사라고 하니깐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내가 문학을 전공했느냐고 묻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의 정체성, 기독교 신학도 공부했고, 그러나 학위는 문학박사인 이 두 가지 관계성을 종교와 문학으로 잘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여성신학을 합니다. 《기독교사상》이란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신학과 관련된 글을 써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아까 자기합물 말씀도 하셨지만요. 저는 그동안 ‘권위의 계보학’, 소위 ‘가부장적인 남성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갔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성의 경험에서, 비서구인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직하게 고민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사상》이라는 데서 원고청탁이 1년 내내 연재해 달라고 왔길래, 여성신학이라고 쓰면 아무도 안 읽는다, 한국의 목사들이. 그래서 신학학이라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정’의 신학, 뭐 ‘왕의 남자’ 같은 영화가 3월에 뺏을 때는 ‘줄’의 신학, 이래가지고 광대들의 ‘줄’하고, 아가서에 나오는 한 여자가 두 남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 뭐 이런 것을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을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의 정체를 오늘 교수님께서 잘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교와 문학들을 넘나들면서 이리이러한 일을 ‘해라’, ‘했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물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때, 그게 삶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담아 내지 못한다면, …(?)…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개인의 취향일까, 개인이 죽어야 하는 걸까, 이러면 다시 종교가 될까. 내 문제로부터 정직하게 출발하지만, 그게 동어반복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까지 같이 설득해 낼 수 있는 총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까. 이게 한 가지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예수도 결국은 ‘권위의 계보학’을 따르지 않아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가 새롭게 만

들어낸 언어가 제가 볼 때는 ‘아버지’ 같습니다. 어떤 예언자도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아버지’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용어가 다시 한 번 종교권력이 되다보니까 유일한 신을 부르는 말이 되다보니까 그밖에 모든 부름말은 이단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치부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종교, 새로운 존재를 다루는 것은 맞는데, 낡기까지, 낙태되지 않고 잘 낡게 될 때까지, 우리의 상상력들이 너무나 일천하고, 종교권력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 낙태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상당히 큼니다. 교수님께서 길을 보여 주십시오.

정진홍 : 참 감동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에 정직하다보면 그것이 결코 자신만의 문제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이란 결코 설계된 작업계획의 첫 단계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단계에서나 어느 문제에서나 ‘있어야 하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가 직면하는 총체와 만나는 자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상을 뚫고 낯선 언어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과제입니다. 더구나 새 언어가 낡는 새로운 실재를 일상 안에 있는 실재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은 예사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문화의 발전, 인간의 성숙은 새로운 언어의 발견과 발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새로운 언어를 발언하고 창조해낼 권리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들, 문학적인 용어들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새 언어가 언제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박해도 받고, 놀림감도 되고, 학문의 영역에서는 딜레땅데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새 언어의 출현이 빛는 새 현실이 전개되지 않았다면 학문의 담론은 화석화된 동어반복밖에 발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낙태의 두려움 없지 않고, 새 언어의 권력화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의도적인 조어(造語)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도달한 필연적인 발언이 낳는 언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마땅한 일이 '새 언어의 창조'라고 믿습니다. 너무 낙관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 외에 달리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질의 :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낙태는 죄인가. 경제논리며……

정진홍 : 아까 경제논리로만 얘기를 하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르게 보면요. 그런 경제논리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사물을 볼 때 잘된 것 잘못된 것으로 구별하지만 말고 어떤 주장이나 현상이 그렇게 묘사되고 기술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전국토가 묘지화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그러므로 화장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 경제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도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여성신학도 제가 보기에는 그 나름의 '권위의 계보학'이 이미 형성되었더군요. 그렇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 속에 나도 끼어들어야 하겠고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물음을 간과한 채 바로 그러한 권력의 틀 안에서 칩거하며 그 권력을 누리려는 것이 문제고, 인문학계 안에서 그러한 경향이 심

해지면서 인문학이 스스로 자기 설 자리를 잃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모르긴 해도 자칫 여성신학도 그러한 ‘투’로 지금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학이 이제는 3세대 젊은이들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미 1세대 말에서 2세대 초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무튼 요즘은 3세대들이 활발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어나 하면 ‘종교(religion)’라는 말입니다. 종교라는 우리 역사에 없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에 서양인들이 쓰던 religion을 일본인들이 ‘종교’라고 번역한 것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용어의 범주가 우리 경험을 담는 것도 있지만 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종교라는 언어의 서양적 개념이 억지로 우리 문화를 재단하면서 낳은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종교사를 기술하면서도 ‘종교 이전의 종교’라든지 ‘종교 이후의 종교’라는 서술이 불가피해집니다.

‘종교’라는 말을 그대로 계속 사용해야 하나, 아니면 그 개념을 재규정해서 써야 하나, 아니면 아예 종교라는 언어자체를 폐기하고 다른 언어로 인간의 ‘어떤 독특한 경험’을 다시 명명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제 3세대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서양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서양에서도 religion이란 말이 언제부터 출현했는지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오늘 우리의 경험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또 담았던 것이냐 하는 물음들을 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즘은 world religion이란 표현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등장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양이 같이 religion이란 개념에 대한 물음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참 흥미

롭죠. 그 용어에 대한 ‘당혹’은 근대화하고 연결된 우리들만의 고민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동서양을 망라한 그야말로 글로벌한 종교학계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만,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이제는 여성신학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가지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남성신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성별을 가지고 신을 논의하던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신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쪽으로 문제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번역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religion이라는 말이 서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religion이 무엇인가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신학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신 신 자체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물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성신학의 역사가 매우 짧다고 그러시지만 여성신학의 전개를 보면 벌써 여러 계파가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2, 3백년 혹은 3, 4백년을 거쳐서 발전하던 이론들이 압축되어 가지고 불과 5, 6년 사이에 확 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굳이 젠더(gender)를 말한다면 요즘 종교학에서는 최초의 신은 전부 여성신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아버지가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풍요와 다산(多産)이라는 것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일치된 여성상징이라는 것이 근원적인 것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성신이 신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보는 노력이 경주되었으면 합니다. 참 의미 있고 흥미로운 연재를 하시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신을 얘기해 보자고 좀 써 주세요.

질의 : '신의 신학'을 연재해 보겠습니다.

질의 : 불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정직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상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상상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문학작품만 보더라도 작가가 의도한 상상력이 있고, 독자가 상상하는 생각이 각자 다른데, 교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상상력의 고갈이 너무 심한, 의도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상상력이 좋은 것만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까지가 상상력이고, 어느 정도는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홍 :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문학을 전공하신다니 좀 우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너무 도식적인 구분입니다만 저는 산문과 시를 대칭적으로 놓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좋은 산문은 시적인 요소를 내장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는 산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산문 속에 담긴 시적 상상력, 시 속에 담긴 산문적 상상력, 그렇게 말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상상은 현실을 넘어서되 현실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꿈(희망 또는 비전)'을 가집니다. 혹은 꾸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꿈은 눈을 감고 꾸는 꿈이 아니라 눈을 뜨고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눈 뜬 꿈' 그것이 저는 '상상'이라고 여깁니다. 전달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엄청 많은 저술들이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려면 유평근 교수께서 내신 《상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네이션(imagination)’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마음의 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그 결들인 이성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하는 것에 속하지 않은 어떤 독특한 마음의 결, 그런 것을 막연하게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한 얘기가 더 필요할 텐데…. 죄송합니다.

질의 : (……) 참 종교와 다른 유사종교를 구분하는 지침으로서, ‘살아 있는 신은 인간에게 마셔서 시원함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물처럼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종교들은 제도나 의식 속에 갇혀서 어려움을 만들어 버리고, 또 일부에서는 현학적으로 수증기처럼 만들어 버린다. 참 살아있는 신이라면 마셔서 시원함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서 너무 비종교적인 첨단산업이라든지 많은 변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잘못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개인의 상상력의 빈곤이 개인의 의지의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개인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피할 수 없는 본질상의, 매일 접하는 환경 속에서 과연 상상력의 빈곤을 벗어나서 풍요한 상상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보충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진홍 :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 어쩌면 답변이 쉬울지도 모르니다. 현실에 함몰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체제 순응적이어도 좋지만 그렇기만 하면 체제의 몰락과 더불어 나도 몰락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순응적이면서도 그것을 벗어나는 차원을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체제가 몰락하는 경우 오히려 그 몰락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이 상상력의 빈곤과 풍요의 차이죠. 우리 개개인이 ‘기계적인 틀’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틈’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미지네이션’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교과과정이 있고, 배우는 내용도 정통이라는 학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강제와 순응과 인내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참 막연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근원적으로 되물을 수 있는 자유를 호흡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것이 상상력의 고갈을 사는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해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은 해답을 스스로 살아가고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 그것이 곧 상상력의 결실이지요.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할 때마다 참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주제 연구 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동료가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제게 꾸중을 하더군요. 무릇 박사논문 집필과정은 학자가 되기 위한 일종의 훈련과정인데, ‘이런 방법으로, 이 주제로,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가르쳐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집어던져 두느냐고요.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주제와 방법까지 지도받은 학생들이 취직도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틈에 보면, 이들이 똑같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의 또는 권력의 계보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정직한 고뇌자는 숨도 쉬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 어떻게 절충을 해야 할지……. 하여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조금 더 열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 곧 ‘참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의 문제…….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종교는 좋은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개인의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로 그 물음을 축소해서 살펴보죠. 이에 대한 대답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적 태도, 곧 배타나 독선은 종교적 인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사람 종교인이 아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종교인이 되어 가지고 버렸다’고 묘사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최근 ‘종교는 언제부터 악해지는가?’하는 논의가 테러전쟁이 격화되면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전형적인 것은 종교가 스스로 자신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얘기할 때부터 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의견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유념하면 종교는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문제의 주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문제는 어느 특정 종교는 옳고 어느 종교는 그르다고 하는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경험주체가 어떻게 그 종교를 수용하고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종교(religion)’란 말 대신에 보편적인 의미에서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낯선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제도나 조직으로써의 종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종교성(religiosity)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종교조직이나 제도에 담겨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교회가, 지금 절이, 지금 성당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집단이지 그게 무슨 구원의 선포나 실천주체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제도들이 문화적인 실체로서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의 태도도 있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의 종교적인 품성은 제도의 산물만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학의 구원론적 의미, 예술이나 정치나 경제의

구원론적 의미론이 논의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요즘 유명한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종교의 시대에서 종교들의 시대로, 그리고 종교들의 시대에서 종교적인 시대로 인류의 종교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여전히 ‘종교’라는 말이 효용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한 동안 종교를 정의 하면서 폴 틸리히(Paul Tillich)가 말한 ‘궁극적 관심 또는 실재(ultimate concern, ultimate reality)’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궁극성이란 것을 다만 ‘영적’인 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도 궁극적인 관심이나 실재가 되었고, 과학이나 경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종교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대상이 또 다른 궁극적인 관심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도구화’ 현상이 그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겪은 일입니다.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주일에 신도가 열댓명 모이더군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교회재정이 어렵겠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신도 중 한 명이 아주 부자가 있는데, 그 헌금으로 교회가 잘 운영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자의 취미가 파도타기인데 돈을 버는 것도 파도타기 위해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파도타기를 잘하기 위해서 라고요. 그러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궁극적 관심은 교회나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일 뿐 궁극적 관심은 파도타기예요.

오늘날의 궁극적 관심은 전통적인 궁극적 관심을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종교행태가 그러합니다. 경제인들의 경제행위가 그러합니다. 정치도 종교적이고 경제도 종교적입니다.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의 울안에

만 있지 않습니다. 문학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사이비 종교’를 운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판단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주장하는 사이비라는 판단을 누구나 추종하는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문화 안에 있는 실체들에 대하여 ‘비판적 인식’을 의도 하듯이 종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부정보다 ‘비판적 인식이나 비판적 평가(critical assesment)’를 도모해야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성의 소멸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전에 중국 사회과학원에 가봤더니, 북경의 종교연구실에 학자들이 65명이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종교학을 공부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냥 이데올로기로서의 반종교 이념을 어떻게 개발하고 가르칠까에 대해서만 연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념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온통 중국사회가 새로운 종교의 등장에 직면해 있어요. 그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통일교도 있습니다. 바로 이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이념적인 종교논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는 어쩌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맑스적인, 또는 마오적인 이데올로기가 느슨해지면서 그걸 보충할 다른 궁극적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보면 맑시즘이나 마오이즘은 철저하게 ‘종교적’이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학이 전통적인 종교가 공허해진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도 다르지 않지요. 그 공허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종교는 무한히 변합니다. 하지만 종교성의 소멸은 불가능합니다. 옳고 그른 종교를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정진강 : 예, 다음 분!

이재룡 : 불문학을 공부하는 이재룡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처음 대학 때, 엘리아데를 접했고, 신화 같은 것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데, 엘리아데 자체가 종교학자이면서 동시에 소설도 쓰고, 불문학과 관련이 깊어서 발작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한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존경과 학문적인 깊이에 대한 감탄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보면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최근에 제가 엘리아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 봤을 때, 실망스러운 부분이 종교문학과 덧붙여서 정치적 선택의 문제에 대한 건데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진홍 : 엘리아데가 루마니아 사람인데, 루마니아에서 거의 천재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18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칼럼을 쓰기 시작했고, 반 유대주의자의 캠프에 들어가서 나치즘을 옹호하는 글도 썼고,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행적이 나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 일이 최근 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더 깊이 읽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아데 쪽에 호의를 가지고 그 사태를 보려는 편견이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구라파에서 최빈국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언제나 구라파에서 가장 촌스럽고 가난한 루마니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헤겔의 철학에 대해 심한 저항을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대국의 철학이라는 거지요. ‘도대체 변증법적인 역사발전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건 강대국들의 논리다. 우리 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입장에서 살아온 백성들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영원한 재창조를 살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철학자 중에 누가 과연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헤겔을 읽어

보려 했던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마니아라고 하는 데서 자란 한 젊은이의 절박한 고뇌를 읽으면 그의 행위가 좀 더 읽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안티세미티즘(anti-semitism) 얘긴데요, 그가 그러한 잡지에 몇 편의 글을 쓴 것은 20세 전후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 전체를 통해 그가 과연 반유대적인 태도를 주장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의 주장이 발견됩니다. 그 분이 쓰신 《종교이념의 역사(History of Religious Ideas)》라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중국보다 5년 늦었고, 일본보다는 10년 뒤졌어요. 그 책에 보면 종교사를 연대기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른바 ‘창조적인 사건’들을 초점으로 이를 직조(織造)합니다. 그 하나의 예로 엘리아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신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엘리아데는 이를 당대에 있었던 고대 중근동지방의 ‘초생아 희생제’로 봅니다. 초생아는 자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야권을 사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시의 ‘신앙’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사건을 엘리아데는 신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아브라함이 초생아 희생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여깁니다. 새로운 종교성의 출현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또는 그 당대의 문화에서부터) 신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표상화된 것이고, 결국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것이 그 이후의 유대이즘(Judaism)을 관통하면서 인류문화 속에서 독특한 종교성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려났습니다. 종교사에서 비교가 되는 현

상을 찾기 힘든 극히 창조적인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을 정통적인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 받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도 욕을 먹는 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아데가 반역사주의(anti-historicism)를 주장한다는 비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엘리아데에 대한 최초의 비난은 그러한 투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분은 제가 번역한 《우주와 역사(Cosmos and History)》를 예로 들면서 엘리아데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판적인 지식인이 하는 짓이라고 제 실명을 들어 비판도 하셨습니다.

저는 피상적인 책읽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자기 기만적인가 하는 것들이 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아무튼 엘리아데는 이른바 ‘영원회귀’를 일컫습니다. 끊임없는 순환적 회귀를 역사이해의 핵심으로 거론합니다. 출발과 목적이 분명한 직선적 시간관과 다른 것이죠. 그러나 그는 니체적인 선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귀하되 처음과 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은 끝이고, 끝은 처음이라는 이해가 그 내용입니다. 단 한번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언제든지 끝나고 시작하는 가능성이 현존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현대적이지 않은 역사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착점이 없는 트랙을 도는 것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주의적인 입장은 자신의 역사관이나 시간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중요한 것은 역사주의 자체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역사주의라는 이름표를 부쳐 하나의 주장을 폄하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판단주체인 역사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성찰입니다. 엘리아데는 이러한 주장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에서 보면 전혀 공명할 수 없는 주장을 펴는 반유대적인 학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철저하게 역

사자체라 신이라고 할 만큼 역사주의의 전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주의 자체를 물어야 할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강 : 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전체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홍 :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아데가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엘리아데를 만났을 때, 한국 샤머니즘이 동북영향을 받았다고 그 책에 쓰셨는데, 그 동북이 어디냐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솔직하게 참고자료에서 읽은 것을 그대로 옮겨 썼는데 잘 모르겠으니 그 부분의 각주를 읽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분은 그 책을 집필하다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참 흥미가 있는 사람인데요, 일기를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른 살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란 철저하게 주관적인 ‘문학’ 또는 ‘업적’입니다. 아무튼 《샤머니즘》을 쓰다가 지쳤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저 쓴 것이 아니라 소설 쓰기에 집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설은 상상력을 따라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학문이란 것은 실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계기에서 그는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삶은 실험실이 아닌데, 왜 실험실적인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증(proof)을 학문 일반에서 꼭 해야 하나? 그래서 반복 실험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인문학이 서술되어야 하나? 이런 것으로 자주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저작인 샤머니즘을 쓰다 지치면 소설을 썼는데, 그때 쓴 소설이름이 《뱀》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다 다시 학문적인 저술에 돌아가 그것

을 완성하고 이어서 《뱀》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이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뱀》이라는 소설을 자기 상상력 속에서 썼는데, 다시 말하면 그 《뱀》에 나온 ‘뱀’의 심볼리즘(symbolism)이 자기 상상 속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종교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제 인간이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놀랍니다. ‘나는 아무런 자료 없이 썼는데, 다만 문학적인 상상력 속에서 썼을 뿐인데, 어쩌면 그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과 그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상상력의 신비에 놀랍니다. 인간의 이미지네이션, 실증이 필요 없는 상상이 어쩌면 이렇게 ‘실증적’일까,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담고 나올까?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불가분리적인 두 우주, 곧 학문과 문학의 두 우주를 산다고 스스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둘 중의 어느 것도 어느 것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삶 자체였습니다. 그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로 그의 삶을 지탱해준 실재(reality)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설 중에 《만틀리사 거리(The Old Man and Bureaucrats)》라는 게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역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은퇴한 교장이 출세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궁금한 사람의 생애를 그들을 만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관리가 그를 정보국에 끌어가 취조를 합니다. 취조관이 어떤 사실을 묻습니다. 그러면 교장은 그것은 이러저러합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늘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려면요, A보다 그 A의 아버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고 말합니다. 지루한 심문관이 ‘아니 그만하고,’ A를 다시 물어보면 교장은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A의 아버지를 아시려면요, 그 A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술’이 계속됩니다. 엘리야테가 보여주

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독특한 역사관입니다. 상상력을 통한 태초에의 회귀를 결한 역사는 역사가 아니죠. 태초는 실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 속에는 태초에 대한 실증을 희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실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그 허를 메꿀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문학과 종교, 그리고 그러한 상상력의 문화와 우리의 현실이 빛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피할 수도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서술범주를 다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종교도 문학도 삶의 다른 현실도 나눌 수 없이 하나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일 뿐입니다.....

정진강 : 정확히 2시에 출발해서 5시까지 3시간이 경과했는데, 선생님께서 장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